

2026년 춘계 종묘대제

권재중(權在琮, 북아공파 시조 후 35世) 경종대왕 초헌관 헌작

권오협(權五協, 추밀공파 시조 후 35世) 문종대왕 아헌관 헌작

지난 5월 3일 서울 종로구 종로 157 종묘에서 대제가 거행되었다. 종묘宗廟는 조선왕조와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이곳은 국가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종묘제례를 봉행하는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종묘대제라 한다. 종묘대제는 국가유신정 산하 국가유산진흥원, 종묘대제봉행위원회의 종묘제례보존회 · 종묘제례악보존회가 함께 연출하는 거대한 행사로 오전에는 영녕전 제례를 봉행하고, 오후 행사는 어가행렬과 정전의 제례 봉행이다.

종묘대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납일 등 1년에 5번 지냈으나 현재는 매년 양력 5월 첫 번째 일요일과 11월 첫 번째 토요일에 봉행하고 있다. 제향 의식 뿐 아니라 제례악과 일부 등 유형과 무형의 세계유산을 함께 볼 수 있는 종묘제례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종합적인 의례이다.

종묘제례는 1969년부터 종묘제례보존회(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 의해 복원되었으며, 제향 행사는 제사 전의 준비 과정과 임금이 출궁하여 종묘에 이르는 어가행렬, 제례 봉행(제례악 및 일부 포함)으로 나누어져 있다. 1975년 국가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되었고, 2001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날 우리 문종의 원로인 권재중 성균관고문과 권오협 문충공중회장 두 분이 영녕전永寧殿 헌관으로 봉무하였다. 전날 2일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모든 헌관과 제관이 습의習儀를 하였다. 습의는 나라의 의식儀式을 미리 배워 익히는 예행연습 또는 리허설과 같다. 제당 당일은 아침부터 이슬비와 가랑비가 번갈아 내려 땅이 젖어 질퍽한 가운데 오전 8시부터 전사정 옆 천막 속에서 제관들이 모두 환복하고, 9시 반부터 영녕전으로 이동하여 10시부터 제례가 시작되었다. 우헌관계로 영녕전 제례의 팔일무 공연은 생략되고, 종묘제례악 연주는 오디오로 대체되었다. 비는 오락가락하고 기온이 떨어져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고령의 헌관들 행군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오후에는 비가 그쳐 정전의 모든 행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팔일무와 종묘제례악이 연주되니 종묘대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었다.

헌관과 집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경종대왕景宗大王과 단의왕후신씨端懿王后沈氏 선의왕후어씨宣懿王后魚氏의 신실神室인 제13실 초헌관은 권재중, 아헌관 어경홍, 종헌관 이범대, 대축 이관우, 묘사 이현규, 내제랑 이의백, 외제랑 어경연, 집준자 이광교 씨가 봉무하고, 문종대왕文宗大王과 현덕왕후권씨顯德王后權氏의 신주를 봉안한 제6실 초헌관은 이순호, 아헌관 권오협, 종헌관 이장열, 대축 이석진, 묘사 이경우, 내제랑 이해문, 외제랑 이한성, 집준자는 이석재 씨가 봉무하였다. 실의 제관은 집례 이학선, 찬자 이채중, 당상알자 이경호, 이도형, 이규호, 당하알자 이남정, 천조관 이정희, 봉조관 이해준, 관세위 이병욱, 이경주, 해설 이해영, 씨 등이다. 이번 행사의 헌관과 집사 인원은 헌관 정전 54인, 영녕전 48인 합 102인이고, 집사 정전 90인, 영녕전 80인, 합 170인 등 제관 총계는 280인이었다.

권재중 성균관고문은 북아공파 판서공계 야옹공野翁公(휘 의機) 후손으로 보성중고등학교를 정년퇴임하고 야옹공중종 전 서울화수회장을 10여 년간 맡은 바 있고, 방승통신대이사회 부회장, (주)안동권씨 종보사 이사 능동춘추 편집주간, 전 성균관자문위원, 전주이씨대동종약원이 주관하는 종묘·사직대제 전수교육 종합1기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경종대왕 제13실 초헌관은 대동종약원 의궤 · 해동惠陵봉황회가 천거하고 종묘대제봉향위원회에서 위촉하였다.

권오협 추밀공파 정간공계 문충공중회장은 재임으로 문충공(휘 근近)의 장자 총제공總制公(휘 천踐) 후손이다. 정간공靖簡公중종 갑사와 충주시중친회장을 겸하고 있으며 전 충주시농협조합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종대왕 제6실 아헌관은 안동권씨대종회에서 천거하고 종묘대제봉향위원회에서 위촉하였다.

- 종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1395년(태조 4)에 종묘 창건하고 정전 7칸 건설, 태조의 4대 조상(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신.
- 1421년(세종 3) 영녕전 8칸 건축.
- 1546년(명종 1) 정전 4칸을 증축(총 11칸).
- 1592년(선조 25) 입진왜란으로 소실.
- 1608년(광해군 즉위) 종묘를 중건(정전 11칸, 영녕전 10칸).
- 1667년(현종 8) 영녕전 2칸을 증축(총 12칸).
- 1726년(영조 2) 정전 4칸을 증축(총 15칸).
- 1836년(헌종 2) 정전 4칸, 영녕전 4칸을 증축(정전 총 19칸, 영녕전 총 16칸).
- 1928년 순종과 순명황후의 신주를 모신.
- 1931년 육교(종묘와 창경궁 사이의 다리)건설.
- 1945년 종묘제례를 폐지.

- 1963년 사적史蹟으로 지정.
- 1964년 종묘제례악을 국가무형유산 제1호로 지정. 관리지는 종묘제례악보존회.
- 1968년 순정황후의 신주를 모신.
- 1969년 종묘제례 봉행을 재개(매년 10월 1일로 지정).
- 1971년 종묘제례 봉행일을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
- 1973년 의민황태자(영친왕)의 신주를 모신.
- 1975년 종묘제례를 국가무형유산 제56호로 지정. 관리지는 종묘제례보존회.
- 1985년 정전을 국보 제227호로 지정. 영녕전을 보물 제821호로 지정.
- 1995년 정전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대한민국 세 번째.
-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 종묘제례 순서는 다음과 같다.
- ①제계齋戒：제향에 앞서 몸과 마음을 엄숙하고 깨끗이 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상이나 문병을 하지 않으며 음악도 듣지 않고 형살刑殺 문서에서도 서명하지 않는다.
- ②취위就位：제향을 시작하기 전에 제관들이 정해진 자리에 서는 절차이다.
- ③진청행사進淸行事(영신례迎神禮)：묘사(오른쪽에서 술을 올리는 사람)와 대축(축문을 읽는 사람)이 각 신실에 나아가 신왕과 선후의 신주를 감실에서 받아들여내어 좌대에 모신 후 예의사(초헌관을 모시는 사람)가 초헌관에게 제향을 거행하도록 한다.
- ④신란례晨禋禮：신晨은 장차 날이 밝아오는 때이고 관禋은 올창주를 땅에 붓는 것으로 날이 밝아오는 때 올창주를 땅에 부어 신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 ⑤게식례饋食禮：신을 위해 제물을 바치는 의식으로 익힌 음식을 바친다는 의미에서 천조薦俎라고도 하였으며, 각 신실마다 조수와 익히지 않은 소, 양, 돼지를 받들어 올린다.
- ⑥초헌례初獻禮：신에게 첫 번째 술을 올리고, 신명神明에게 고하는 축문을 읽는 의식이다. 이때 올리는 술은 예제醴齊이다.
- ⑦아헌례亞獻禮：신에게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의식이다. 이때 절차는 초헌례와 같으나 축문을 읽지 않고 올리는 술은 양제盞齊이다.
- ⑧종헌례終獻禮：신에게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의식으로서 절차는 아헌례와 같다. 이때 올리는 술은 청주淸酒이며, 공신당과 칠사당에서는 헌관이 각각의 신위에게 술잔을 올린다.
- ⑨음복례飲福禮：제향에 쓰인 술과 제물을 초헌관이 음복하는 것으로 신이 주신 복을 받는 의식이다. 이후 초헌관은 판 위에서 네 번 절하고 또한 모든 헌관과 제관도 네 번 절한다.
- ⑩절변두撤籩豆：제향에 쓰인 변籩, 두豆를 거두어들이는 의식으로서 실제로는 진설陳設되어 있는 변籩, 두豆 각 하나씩을 제자리에서 조금씩 옮기는 절차이다.
- ⑪송신례送神禮：신을 보내드리는 의식으로, 모든 제관이 신위를 향해 네 번 절한다. 각 실의 묘사와 대축관은 신주를 들어 모신다. 이때 궁가에서 흥안지악興安之樂을 연주한다.
- ⑫망로례望燎禮：제향의 마지막 절차로, 제례에 쓰인 폐幣와 축문을 태우고 묻는 의식이다. 모든 예를 마쳤으므로 예의사가 “예필禮畢”이라고 외이면 초헌관은 재궁으로 돌아간다. 이후 제관들이 네 번 절하고 헌관과 집사 및 악사와 일무인 모두 퇴장한다.

- 종묘대제宗廟大祭 제관祭官 봉무요령奉務要領을 소개한다.
- 1. 모든 제관이 익히야 할 사항
- ①제계齋戒：제향祭享에 봉무奉務하는 모든 제관은 전일前日에 목욕제계沐浴齋戒해야 한다.
- ②집흘법執勿法(술을 잡는 법)：모든 제관은 제례복祭禮服을 착용한 후 반드시 흘笏을 잡아야 한다. 흘은 오른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덮어 써서 본인의 중심(배꼽)에 가볍게 대고 흘의 각도角度는 45°로 한다.
- ③진흘법執勿法(술을 끄는 법)：오른손으로 잡은 흘을 왼쪽 가슴 홀주머니에 쏙는다. 헌관獻官 및 집사執事는 집례의 창홀에 따라 흘을 쏘고 흘을 잡는다. 그러나 집사는 각자 봉무위치에 서면 별명이 없어도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반드시 흘을 쏙는다. 봉무가 끝나면 흘을 잡는다.
- ④게법跪法(꿇어앉는 법)：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공수하여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고 허리를 쭉 펴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다. (이 자세는 헌작獻爵할 때, 향로와 향합을 받을 때, 봉작奉爵, 전작奠爵할 때의 자세다.)
- ⑤부복俯伏：두 손을 여덟팔(八)자로 땅을 짚고 왼쪽 무릎을 꿇은 다음 오른쪽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영녕전 제13실 기념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초헌관 권재중 네 번째 이귀남 종묘대제봉행위원회 위원장



영녕전 제6실 기념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아헌관 권오협 문충공중회장

- 팔은 펴고 고개는 다소곳이 숙인다. 일어날 때는 오른쪽 무릎을 편 다음 왼쪽 무릎을 펴며 일어선다. (국궁시, 독축시, 헌작후)
- ⑥국궁鞠躬：배례拜禮를 하기 위해 두 손을 여덟팔(八)자로 땅에 짚고 팔은 쭉 펴고 고개를 다소곳이 숙인 부복과 같은 자세다.
- ⑦사배법四拜法(네 번 절하는 법)：국궁한 자세에서 창홀에 따라 “배”하면 두 팔을 굽혀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머리를 서서히 숙였다가, “흥”하면 서서히 팔을 펴며 고개를 든다. (창홀에 맞춰 천천히 동작한다.) 이와 같은 동작을 네 번 반복하는 것을 국궁사배鞠躬四拜라 한다.
- ⑧보행법步行法：모든 제관은 보행중 흘을 잡고 자세를 똑바로 하여 보폭步幅을 반보半步로 하며 앞 사람과의 거리는 약 1m 간격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좌우左右를 살피지 말고 시선은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단정히 보행한다.
- ⑨승강계법陞降階法：계단을 올라갈 때는 오른발을 먼저 올려 딛고 왼발을 합치고, 계단을 내려올 때는 반대로 왼발을 내려 딛고 오른발을 합친다. 이와 같은 ஏ하모보進歩歩步를 반복하여 계단을 오르고 내린다.
- ⑩관세법盥洗法(손 씻는 법)：관세위를 향해 서서 손끝을 물에 조금 적신 다음 수건으로 닦는다. 이는 제향에 임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다는 의미이다.※ 모든 제관은 반드시 좌우로 옆을 맞춘다.

- 2. 초헌관初獻官 봉무요령
- ①준소서향립尊所西向立：초헌관은 준상尊床에 도착한 후 서쪽을 향하여 서서 집준관이 용작龍勺으로 술을 떠서 용찬龍贊 또는 작爵에 작주酌酒하는 것을 살핀다.
- ②삼상향三上香：초헌관은 신위神位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흘을 주머니에 쏙은 후 묘사가 받쳐들은 향합香盥의 향주를 대축이 받쳐들은 향로香爐에 세 번에 나누어 모두 넣는다.
- ③집찬관지執瓊灌地：초헌관은 축사로부터 용찬龍贊만 받아서 관지구灌地口에 조금씩 세 번에 나눠 모두 부은 다음 빈 용찬을 축사에게 돌려준다.
- ④집폐헌폐執幣獻幣：초헌관은 축사로부터 폐비幣簠(폐를 담은 광주리)를 받아 눈높이만큼 받들었다가 대축에게 전해준다.
- ⑤집작헌작執爵獻爵：초헌관은 축사가 전해주는 작을 눈높이로 받아 양위시兩位時에 첫 번째 작은 대축에게 전하고 두 번째 작은 묘사에게 전한다. * 삼위시三位時는 대축에게 두 번, 묘사에게 한 번 전한다. * 사위시四位時는 대축과 묘사에게 각각 두 번 전한다.
- ⑥부복흥소퇴궐俯伏興少退跪：초헌관은 양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렸다가 일어나 조금 뒤로 물러나서 다시 무릎을 구부려 바닥에 대고 앉는다.
- ⑦부복흥평신俯伏興平身：헌관은 양손으로 땅을 짚고 엎드렸다가 일어서서 흘을 잡는다.
- ⑧강복귀降復位：실의 동쪽 기둥 옆에 남쪽을 향해 섰다가 신실神室 순서대로 내려온다.

- 3. 아헌亞獻·종헌관終獻官 봉무요령
- ①대축이 독축하기 전 “제헌관집사급제위자개궐諸獻官執事及在位者皆跪”라는 창홀이 나오면 아헌관과 종헌관은 배석에서 그대로 꿇어앉는다.
- ②준소서향립尊所西向立, 집작헌작執爵獻爵은 초헌관 봉무요령에 준한다.
- ③헌작후 부복하고 일어나 흘을 잡고 실의 동쪽 기둥 옆에 남향하여 섰다가 신실 순서대로 내려온다.

- 4. 천조관 薦俎官, 봉조관捧俎官 봉무요령
- ①출예찬소出詣饌所：알자의 인도로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동문으로 나가 신문 앞 찬소饌所에 도착하여 천조관은 천조상薦俎床을 받들고, 봉조관은 조수를 받들어 남쪽 신문神門 앞에 대기한다.
- ②입자정문지태개入自正門至泰階：신로神路로 정중히 걸어서 태계泰階 앞에 도착하여 대축의 인도를 받아 제1실로 간다.
- ③신위전제神位前跪：천조관은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아 천조상薦俎床을 놓은 다음 봉조관이 주는 조수를 받아 천조상 위에 놓는다.
- ④전우신위전奠于神位前：천조관은 조수를 받들어 대축에게 전하여 신위 전에 올린다.

- 5. 대축大祝 봉무요령
- ①봉축奉祝-제1실 대축：재궁에서 축함을 받들어 신로를 따라 남신문으로 들어와 태계로 올라 제1실 제상에 축함을 모셔놓고 봉등과 함께 내려온다.
- ②취위就位：대축은 신실에 도착하면 흘을 쏘고 제상에 초와 와룡촛대에 붙을 전다.
- ③묘사대축봉출신주개궐 廟司大祝捧出神主啓櫝：신실의 서쪽 의 면장과 중 면장을 같은 고리에 건 다음(휘장을 맡아 걸지 말 것) 감실의 발(茀簾)을 맡아 올려 고리에 걸고, 서쪽의 대왕신주大王神主를 받침과 함께 먼저 모셔 내어, 신탐神櫛 위의 곡계曲机 앞에 모신 후 독합橫函을 열어 신장에 순서대로 둔다. * 삼위三位인 경우 대축이 두 번 내모시고, 사위四位인 경우에는 묘사와 각각 두 번씩 내모신다. ※ 신주의 순서를 꼭 맞추어야 한다.
- ④삼상향三上香：대축은 향로香爐의 덮개를 열고 초헌관 왼쪽에 동향해서 꿇어앉아 향로를 받든다. 초헌관이 향로에 향을 세 번에 나누어 다 넣으면, 향로의 발 두 개가 앞으로 오게 제자리에 올려놓고 덮개를 덮는다. ※ 덮개의 용두龍頭가 앞으로 오도록 덮는다.
- ⑤집찬관지執瓊灌地：신관례시 “예의사도황사손승자동계예준소서향립禮儀使導皇嗣孫陞自東階詣尊所西向立”이라는 창홀이 나오면 대축은 동향하여 꿇어앉아 바다 중앙에 관지구灌地口의 덮개를 연다. 덮개를 덮는 것은 제향이 끝나고 송신사배送神四拜 후에 한다.

- ⑥집폐헌폐執幣獻幣：대축은 초헌관의 왼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초헌관으로부터 폐비를 받아 제상祭床 위의 양쪽 3열 중앙中央(향로와 향합 사이)에 올려놓는다.
- ⑦진찬進饌：제기의 덮개를 열고 제수를 썬 복지를 모두 벗긴다. 벗긴 복지는 접어서 신문 뒤에 둔다.
- ⑧집작헌작執爵獻爵：대축은 초헌관 왼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작을 받아 왼쪽 작정부대 차례로 놓는다. 아헌과 종헌도 같은 예로 한다. * 삼위三位, 사위四位 신실인 경우에는 헌관을 기준으로 대축 쪽의 작을 모두 받아 올린다. ※ 작爵의 용두龍頭가 서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 ⑨독축讀祝：초헌관 왼쪽에서 동쪽을 향하여 꿇어앉아 독축한다. ※ 1실의 대축이 아닌 경우 1실 대축이 독축을 시작한 후에 독축을 시작한다.
- ⑩절변두撤籩豆：대축은 두豆 한 개를 조금 옮긴다.
- ⑪함독남신주合橫納神主：묘사와 함께 신주의 독함을 달고 왕후의 신주부터 순서대로 감실로 들어 모신다. ※ 신주의 순서를 꼭 맞추어야 한다.

- 6. 묘사廟司 봉무요령
- ①취위就位：신실에 도착하면 흘을 쏘고 제상에



2026년 춘계 종묘대제 영녕전 왼쪽부터 권도원 권재중 권오협 권도균



2026년 춘계 종묘대제 영녕전 왼쪽부터 권오달 권재중 권오협 권도균



2026년 춘계 종묘대제 왼쪽부터 권재중 권오협

- 촛불을 켜다.
- ②묘사대축봉출신주개궐 廟司大祝捧出神主啓櫝：대축과 함께 신실의 동쪽 의 면장과 중 면장을 같은 고리에 건 다음(휘장을 맡아 걸지 말 것) 감실의 발(茀簾)을 맡아 올려 고리에 걸고, 대축의 뒤를 이어 황후皇后的 신주神主를 받침과 함께 모셔내어, 신탐神櫛 위의 곡계曲机 앞에 모신 후 독합橫函을 열어 신장에 순서대로 둔다. * 양위兩位 삼위三位인 경우 한 번, 사위四位인 경우에는 두 번 내모신다. ※ 신주의 순서를 꼭 맞추어야 한다.
- ③삼상향三上香：초헌관 옆에 서향해 꿇어앉아 향합香盥을 오른손으로 잡아 왼손에 얹어 놓고 오른손으로 뚜껑을 열어 왼손 밑에 받쳐 들고 삼상향이 끝난 후에 덮개를 덮어 제자리에 놓는다.
- ④집작헌작執爵獻爵：헌관 오른쪽에 꿇어앉아 헌관으로부터 작을 받아 제상에 올린다. 아헌과 종헌도 같은 예로 한다. * 삼위三位 또는 사위四位가 계산 신실은 헌관을 기준으로 묘사 쪽의 작을 모두 받아 올린다. ※ 작爵의 용두龍頭가 서쪽을 향하도록 놓는다.
- ⑤절변두撤籩豆：묘사는 변籩 한 개를 조금 옮긴다.
- ⑥함독남신주合橫納神主：신주의 독함을 달고 왕후의 신주부터 순서대로 감실로 들어 모신다. ※ 신주의 순서를 꼭 맞추어야 한다.

- 7. 축사祝史 봉무요령
- ①집찬관지執瓊灌地：재랑으로부터 용찬龍贊을 받침과 함께 받아 초헌관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 초헌관에게 용찬만 드리고 관지灌地가 끝난 후 용찬을 돌려주면 반아서 재랑에게 전해준다.
- ②집폐헌폐執幣獻幣：초헌관은 축사로부터 폐비幣簠(폐를 담은 광주리)를 받아 눈높이만큼 받들었다가 대축에게 전해준다.
- ③집작헌작執爵獻爵：초헌관은 축사가 전해주는 작을 눈높이로 받아 양위시兩位時에 첫 번째 작은 대축에게 전하고 두 번째 작은 묘사에게 전한다. * 삼위시三位時는 대축에게 두 번, 묘사에게 한 번 전한다. * 사위시四位時는 대축과 묘사에게 각각 두 번 전한다.

- 8. 재랑齎郎 봉무요령
- ①취위就位：각실 준상尊床 앞에 도착하면 동쪽을 향해 선 다음 흘을 쏙는다.
- ②작주酌酒：신관례晨禋禮 때 먼저 용찬의 복지만 벗기고 “예의사도황사손승자동계예준소서향립禮儀使導皇嗣孫陞自東階詣尊所西向立”이라는 창홀이 나오면 게이鸞彝의 먹(덮개)을 연 다음 용찬을 받침과 함께 양손으로 들어 작주하도록 받쳐주고, 집준관이 올창주鬱釐酒를 떠서 부으면 먼저 가져온 자리에 놓고 게이의 먹을 덮는다. 삼헌三獻의 작주도 같은 예로 행하는데 다만 작주한 작이 다음 작을 작주하는데 걸리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떼어서(사이가 있게) 순서대로 놓는다. (초헌은 예제醴齊, 아헌은 양제盞齊, 종헌은 청주淸酒이다.)
- ③집찬관지執瓊灌地：용찬龍贊을 받침과 함께 받들어 축사에게 전하고 기다렸다가 관지灌地 후 용찬이 나오면 반아서 제 자리에 놓는다.
- ④집폐헌폐執幣獻幣：준상 위에 폐幣가 담긴 광주리를 받들어 축사에게 전한다.
- ⑤진찬進饌：작爵을 썬 복지를 모두 벗기고, 벗긴 복지는 접어서 신문 뒤에 둔다.
- ⑥집작헌작執爵獻爵：작을 받들어 축사에게 전한다. ※ 삼위三位 사위四位인 경우 연속으로 전한다. <글 · 사진 권오달 권도원>